

체육기자들이 뽑은 2010 스포츠 10대 뉴스



① 김연아 동계올림픽 금메달

김연아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인 78.50점을 받아낸 뒤 프리 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150.06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 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는 228.56점으로 김연아는 사상 처음으로 220점을 넘기며 동계올림픽 피겨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② 여자축구 세계무대 강타

7월 20세 이하(U-20) 여자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FIFA 대회 3위에 오르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두 달 뒤에는 U-20 대표팀 '언니'의 기운을 이어받은 17세 이하 대표팀이 U-17 월드컵에서 한국에 첫 FIFA 대회 우승컵을 안기는 사건을 만들어냈다.

③ 이대호 9경기 연속 홈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찾을 수 없는 9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이대호는 또 홈런 44개, 안타 174개, 타율 0.364, 타점 133개, 득점 99개, 장타율 0.667, 출루율 0.444를 기록하며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29년 만에 타격 7관왕의 위업을 이뤘다.

④ 축구 월드컵 원정 16강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발점으로 7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은 '허정무호'가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했다. 허정무 감독은 한국 사령탑으로서 처음으로 원정 대회에서 첫 승리까지 따내면서 한국 축구사를 새롭게 장식했다.

⑤ 박태환 쇼게임 2연속 3관왕

박태환은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자유형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 3관왕을 차지하는 등 7개 출전 종목(금3, 은2, 동2)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했다. 아시안 게임 자유형 종목에서 2회 연속 3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박태환이 사상 처음이다.



⑥ 스피드스케이팅 첫 올림픽 금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기적적인 업적을 남겼다. 남자 5000m에서 이승훈이 '깜짝 은메달'을 따내면서 메달 레이스를 시작한 대표팀은 모태범, 이상화(이상 한국체대)가 연달아 남녀 500m에서 금빛 남보를 전해왔으며 이승훈이 행운의 금메달을 보냈다.

⑦ 추신수 2연속 20홈런-20도루

메이저리그의 한국인 대표 타자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년 연속 3할 타율과 20(홈런)-20(도루) 클럽 가입에 성공하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20홈런-20도루와 3할 타율을 동시에 기록한 타자는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 3명뿐이다.

⑧ 김국영 31년만에 100m 한국신

2010년 6월7일 김국영이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국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4조 예선에서 10초31을 기록하며 31년째 '10초34'를 가리키던 한국 육상 남자 100m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국영은 여세를 몰아 1시간30분 뒤에 벌어진 준결승에서 다시 한국기록을 10초23으로 앞당기고 포효했다.

⑨ 박찬호 아시아 투수 최다승

한국인 최초로 '꿈의 무대'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37)가 통산 124승(98패)을 거두며 아시아 투수 최다승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05년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2008년 은퇴)가 작성한 123승을 5년 만에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⑩ FC서울 정상... 제주 돌풍

넬로 빙가다 감독을 앞세운 FC 서울이 프로축구 소니타 K리그 2010 챔피언결정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10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특히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로 6만 관중의 기록을 세웠다. 박경준 감독을 새로 영입한 제주도 '즐거는 축구'를 강조한 소용의 리더십으로 2위 돌풍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이례적 日 '지옥훈련'...체력보강 주력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마치고 귀국 야간까지 이어지는 타격·수비 훈련 녹초

KIA 타이거즈가 22일 일본 마무리캠프를 철수한다.

지난달 21일 일본 미야자키에 마무리 훈련 캠프를 꾸렸던 KIA가 22일 귀국길에 오른다. 당초 예정보다 이틀 빠른 귀국이다.

KIA는 24일 귀국을 계획했지만 선수단의 피로 누적 등을 감안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시즌이 끝난 후 1주일 가량 휴식을 취했던 2군 선수단은 10월 초부터 일제히 훈련 모드에 돌입했다. 1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주축선수들은 한 달가량 휴가를 즐긴 뒤 10월 말 그라운드에서 재소집됐다.

KIA는 올 시즌 이례적으로 12월 훈련을 진행했다. 2010시즌 4강 싸움의 분수령이 됐던 7~8월, 체력적인 열세로 중요한 고비에 치고 오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옥훈련'이 계획된 것이다.

시즌이 끝난 후 1주일 가량 휴식을 취했던 2군 선수단은 10월 초부터 일제히 훈련 모드에 돌입했다. 1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주축선수들은 한 달가량 휴가를 즐긴 뒤 10월 말 그라운드에서 재소집됐다.

11월 1일 남해에 마무리 캠프를 차렸던 선수단은 지난달 21일 일본으로 장소를 옮겨 마무리 훈련을 이어갔다. 일본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잔류조와 투수 한기주, 내야수 안치홍 등 재활조는 무등경기장 등지에서 훈련을 전개했다. 예고편대로 선수들은 일본 마무리 캠프에서 '지옥훈련'을 치렀다. 훈련 기간만큼이나 훈련량도 마무리캠프 역대 최고였다는 게 선수단의 반응이다.

마무리 캠프의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였다. 특별 타격 훈련과 수비훈련은 물론 야간 훈련까지 진행됐다. 훈련을 우선으로 끝는 조병현 감독의 독한 마무리 캠프가 진행된 셈이다.

마무리 캠프를 통해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한 KIA는 돌아온 김진우의 가능성까지 엿보는 등 나름의 수확을 거뒀다.

문제는 부상이다.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되면서 부상병들이 속출했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는 31명의 선수가 일본에 집을 풀었지만 내야수 홍재호, 외야수 신종길, 투수 안영명·정용운·박경태 등 7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조기 귀국을 했다.

한편 선수단은 26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27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자율훈련에 돌입한다. 투·포수조와 재활조는 내달 10일 밤에서 스프링 캠프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찬호, 美 찍고 日로

오릭스 입단...이승엽과 한솔밥

'코리아 특급' 박찬호(37·사진)가 일본무대에서 이승엽(34)과 한솔밥을 먹는다.



박찬호의 소속사인 팀 61은 20일 '박찬호가 일본프로야구 오릭스와 입단에 합의했고 21일 오후 3시30분 강남구 역삼동 '피트니스 박 61'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찬호는 기자회견에서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왼손 투수 구대성이 2001년부터 4년간 활약했던 오릭스는 이번 스토브리그에 이승엽과 박찬호 등 한국이 자랑하는 간판 타자와 투수를 잇달아 영입, 한류 야구의 진원지로 탈바꿈했다. 1994년 계약금 120만달러를 받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해 올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17년을 뛴 박찬호는 선수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면서 종착역을 심각하게 고민해왔고 고향팀 한화로 오기 전 중간 기착지로 일본을 택했다. /연합뉴스

빙속 역주

스피드 스케이팅의 모태범이 20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37회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겸 제65회 전국남녀 종합 빙상선수권대회 남자 스피드 500m 예선전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일국지구

연초 제조장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롯데칠성

코카콜라

50m

금광아파트

해태제과

편의점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